

청소년 창업체험지원 진로교사 워크숍

목포교육지원청,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학생들 진로설계 돕고 창업교육 활성화 위해

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집)이 20일과 21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창업센터에서 청소년 창업체험지원 진로교사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학생들의 창의적인 진로설계를 돕고 창업체험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워크숍에 참여한 교사들은 스타트업 및 창업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특강을 통해 기업가정신의 개념과 핵심역량에 대해 배웠다.

또 다양한 창업체험프로그램 활용 우

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교사는 “기업가정신이 무엇인지, 왜 미래사회 기업가정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도전정신과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창업체험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진로교육에 적용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목포교육지원청 진로체험 담당장학사는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고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과 실생활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창업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창업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북으로 수학여행 평화로 통일여행’ 참가자 모집

청소년 300명 기차타고 광주역서 DMZ도라산역까지

광주청소년 300명이 ‘광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DMZ 도라산역’까지 ‘통일여행’을 떠난다. 중·고등학생 또는 해당 연령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8월29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2019 광주평화통일체험일차’ 사업은 ‘북으로 수학여행 기자’로 표출된 광주시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에 대한 의지와 광주 청소년, 시민들의 남북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 한반도에 대한 기대를 담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광주본부와 (사)광주전남겨레하나가 함께 기획했다.

여행은 9월21일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다. 아침 7시에 광주역을 출발하는 기차 안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한 특강, 문화예술 공연과 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최북단역이자 DMZ 내에 위치한 도라산역에서 하차한 후에는 도라산전망대, 평화공원 등 인근 사적지를 답사

하고 참가자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8월 20일 까지 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http://bit.ly/2019dmztrain>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주소(gyurehana@dumnet)로 전송하면 된다.

정취교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일본과의 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인류 공동번영을 위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평화통일체험일차가 청소년들에게 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DMZ 답사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기차를 타고 평화와 통일을 이야기 나누는 일정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여행을 통해 참가자들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 잘 그려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어린이 안전한 등하굣길 우리가 책임져요”

장성교육지원청, 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공단 오주영 강사가 진행한 이날 교육은 통학버스 운전원들이 숙지해야 할 어린이 행동특성,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장성교육지원청 한종덕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원들이 안전수칙을 잘 숙지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모두의 관심과 안전의식 준수로 학생들의 안전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박종영 기자



장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준)이 21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통학차량 보유 유·초·중 및 학원 운전원 36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교통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통학차량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행복한 담양교육 위해 온 마을 참여하다

담양교육지원청, 제2회 정기회 참여위원회 30명 참석



담양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화)은 지난 21일 참여위원회 위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담양교육지원청은 정기회에 앞서 참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큰 호응을 이끌었다.

연수가 끝나고 바로 개최된 정기회에서는 ‘2019년 담양교육지원청 주요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제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하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그 중 하반기 담양교육 계획에 위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각 분야별 대표로서 입장을 대변하여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운영체제를 마련하여 참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효율적인 참여위원회 운영을 위해 운영소위원회를 포함한 5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화 교육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명품 담양교육 실현을 위해 오늘 회의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리가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함께 발전해 나가는 담양교육의 첫 걸음이 되었으면 한다.” 라고 말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함평교육지원청 북부권 장애학생 진로페스티벌

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숙)은 20일 진로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북부권(나주, 담양, 장성, 화순, 영광, 함평)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6개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교사 10여명이 참여하여 성공적인 진로페스티벌 운영을 위한 지문 및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오는 10월 8일에 개최하는 진로페스티벌에서는 북부권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듭공예, 하비플라리움, 천연제품 만들기 등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드론, 세탁업, 바리스타, 네일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한 진학·취업 박람회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영숙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적성, 흥미, 요구에 맞는 교육 제공은 사회통합 및 자립을 위한 첫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함평=김광춘 기자

청암대, 성과평가서 최고등급인 ‘가’ 등급

청암대학교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단장 박성중)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의 2018년 성과평가서에서 최고 등급인 ‘가’ 등급으로 선정되어 사업비 총액의 5%를 증액 받았다.

산학협력 취업패키지 사업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실현하고 고용 미스매칭의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2018년에는 전체 취업률 65.1%

내내 취업률 68%로 청년 일자리, 대졸자 내내 전유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청암대 보건의료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단의 박성중 단장은 “산학협력사업의 성과평가는 앞으로도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산업현장 직무능력 향상과 지역 산업체와의 취업연계를 강화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순천대 양철주 교수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선정

순천대학교(총장 고영진)는 동물자원과학과 양철주 교수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2022년 말까지 연구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양 교수팀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4년간 총 68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축산업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순천대학교는 태양열, 태양광 및 지열 시스템을 활용한 사육환경에서의 돼지 생산성을 검증하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며, 연구결과가 농가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점



단사양관리 방법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양철주 교수는 “돈사의 사육환경 개선과 돼지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활용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